

창업교육이 벤처정신과 자질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과 2년제 대학생 비교 중심으로-

장 대 성*

The Impact of Venture Creation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with Junior College Students-

Dae-Sung Chang*

요 약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식과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미수강생집단보다 졸업후 창업의지,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창업전공의욕, 창업에 대한 자신감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2년제 대학생집단과 4년제 대학생집단에서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창업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같았다. 이는 2년제 대학생들이나 4년제 대학생들 모두 창업 교육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 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전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at Kyonggi University and Osan College to find the pedagogical effects of venture creation class on the entrepreneu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ducation of venture creation is effective in motivating students to create new business and to change their majors to venture creation.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confidence of creating new business between venture creation taking students and non-takers.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본 논문은 경기대학교 1999년도 일반학술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IMF 체제이후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국 경제문제의 타개책이 각계에서 다방면으로 모색되어왔다. 그 중에서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가 기술력과 도전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벤처기업은 그 역사가 짧고, 창업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으며 전반적으로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한정화·이명자, 1998). 특히 벤처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교육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직장인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크게 부족하고 교육내용도 부실해 창업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1998. 1. 9).

창업 행위를 촉진시키고 창업을 성공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창업 환경조건, 개인적 동기, 그리고 창업 지식 또는 기술이다. 그리고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해주는 주요 역할을 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병주, 1998a). 특히 창업에 대한 개념의 해석 여부에 따라 창업의 결정 요인도 달라지고 창업 교육의 내용도 달라지므로 창업의 개념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조병주, 1998b). 또한 창업이 어떻게 일으켜질 수 있으며, 창업성공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고 있다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박춘엽, 1993, 1997 ; 조병주, 1996), 특히 미래의 창업의 주요 역군인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나 창업교육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에도 창업과 창업교육의 열기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소수의 4년제 대학에서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인 건전한 창업정신과 창업문화를 국민적 기반 위에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년제 대학(구 전문대)에서도 창업 교육이 필요함에도 한국의 2년제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예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2년제 대학생들이나 졸업생들 중에도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이들에 대한 창업교육이 시급하고 창업교육 전에 이들의 창업에 관한 의식과 관심을 미리 분석한다면 이들을 위한 효과적 창업 교육의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4년제 한국 대학생들과 2년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관심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실험집단)과 미수강 학생들(통제집단) 및 2년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은 물론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 교육 효과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만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창업의지와 관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경기대학교 1998년 2학기 경영계열 교양과목인 '창업과 경영'을 수강한 학생들과 미수강생들(2년제 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에 관한 관심을 파악하고 창업교육에 대한 교육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재고함은 물론 창업교육의 전략적 방향제시는 물론 한국 대학생 창업 교육의 기초가 되고자 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정신(Entrepreneurship)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다(Wortman, 1987 ; Carnier, 1996).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창업가정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래로 창업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Gartner(1985)가 창업 정신이란 새로운 조직의 창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창업정신은 조직이 완전히 구성된 다음에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혁신의 근본적인 원천인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에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Carnier, 1996). 급변화하는 시장 환경, 신기술의 급속한 개발, 자유무역 등으로 모든 조직은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창업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창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 기술 등을 창조해 내는 것도 포함한다 (intrapreneurship).

즉 창업정신이란 신조직의 창조뿐만 아니라 기존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것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기업은 물론, 사회복지 조직, 스포츠조직 등 모든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가져오는 경영철학과 정신을 창업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창업정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형들과 dimension들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혁신정신, 위험감수, 의지 도전실천력이라 할 수 있다(Moon and Peery, Jr., 1997). Moon and Peery Jr.(1997)은 창업 정신은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며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위험을 초과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창업정신의 모형을 만들었다.

$$\text{Entrepreneurship} = F(\text{reward-risk})$$

Moon and Peery Jr. (1997)의 주장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이라는 Timmons(1994)의 의견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oon and Peery Jr. (1997)은 창업에서 위험 감수 정신은 투기와는 엄격히 다르다 하고 있다. 그들은 투기는 유의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 의지가 없는 위험감수 라고 한다.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창업정신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면서 그 위험을 극복 또는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면서 혁신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새로운 변화의 창조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2 창업 교육과 창업의지

창업자는 태어나는 것이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창업 교육은 무의미할 것이다. 창업가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에 많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서 창업 활동과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조병주, 1998a). 창업의지 창업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인 Clark et al.(1984)의 연구는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

에 의하면 89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관련과목 수강후 창업계획의 수립에 들어갔거나 창업을 고려하게 된 학생이 전체학생의 36.9%를 차지했고, 창업에 대해 고려해 보고 있는 학생이 42.2%로 나타났다.

또한 조병주(1998)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Timmons(1994)는 기술적 배경을 가진 창업인이 모든 경영지식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창업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팀워크습등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선천적이기 보다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가들에 대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Timmons(1994)는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및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이들의 창업의지의 양양은 물론 창업준비과정 및 기업성장과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 필수적이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계획된 준비기간이어야 하므로 창업교육 및 현장과 연계된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종태, 1998). 나아가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창업학습은 창업을 지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창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올바른 창업정신을 제고시키고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관리와 팀관리, 사업계획 등 창업경영 방법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Timmons(1994)는 창업의지가 있고 창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창업에는 나이와 학력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에게 창업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국민의 많은 수가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통한 창업의식이 제고되어 한국국민의 창업 정신 함양과 고취로 21세기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될 것이다.

2.3 미국에서 창업교육과 대학생들의

창업 관심과 현황

미국의 경우 60년대 말부터 시작해 그 후 창업교육과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창업분야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창업론'과 '중소기업경영론' 등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전공으로 설치하는 대학과 대학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Solomon, Fernald and Weaver, 1993 ; Timmons, 1994).

미국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bson college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창업전·창업시·창업후의 3단계로 교과과정을 재편하였고, 현재 필수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창업가정신 분야의 교과목만도 12개를 개설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학부과정과 MBA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T에서는 MBA 과정의 하나로 '신상품 및 벤처개발(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은 2개를 포함하여 11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경영대학원에서 1990년 초부터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또는 '벤처경영(ventur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배종태, 1998). 미국의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한 창업 교육으로 인하여 1987년도의 미국 대학 신입생의 46%가 졸업후 창업을 원했다(Timmons, 1994). 또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Ewing Kanffman's 창업 연구센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도 자료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생(MBA)의 90%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졸업한지 10년된 졸업생들의 많은 수가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1/3정도가 스스로 창업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일류대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하기 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사실이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창업 환경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약 3,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여 현재 호황경제를 누리고 있다 (Timmons, 1994).

2.4 한국의 창업교육 현황

미국 창업 교육 역사에 비하면 한국의 창업 교육의 역사는 아주 짧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소수의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나 교육내용을 보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 소자본 창업에 중심을 두었다(박춘엽, 1993).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컨설팅회사, 은행 등의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무중심의 단기강좌를 활발히 개설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박춘엽, 1997).

KAIST에서는 1993년부터 대학원과정으로 기술창업론을 개설하고 있고 1998년부터는 학사과정 대상으로 벤처경영론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에서 벤처경영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벤처 및 창업관련강의가 늘어나고 있다(배종태, 1998).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 1999년 첫 교양과목으로 채택된 '벤처기업론'은 1999년 2월 26일 수강신청 접수 첫날에 정원 400명이 마감돼 이 학교 200여개 교양선택 강좌 중 학생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인천대도 이번 학기에 새로 개설한 '무역과 창업경영' 등의 강좌도 정원 60~100명을 단숨에 채우며 인기과목 대열에 새로이 들어섰다(중앙일보, 1999. 3. 2 ; 한겨레신문, 1999. 3. 5).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창업강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도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1999. 3. 2).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창업교육은 성장할 것이며, 아울러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화·이명자, 1998). 한편 한국 정부는 1998년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벤처비즈니스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모두 1천9백억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학교기업은 대학별 육성계획 공모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 받게 되며 성공을 거둬 융자금을 상환하는 정도에 따라 확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융자 상환액은 해당 대학이 새로운 학교기업에 채용자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문화일보, 1999. 3. 13). 이렇게 대학 내의 창업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나이와 학력에 제한 없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소수의 4년제 대학에서만 창업에 대한 기초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숭실대와 호서대등 2개 대학만이 1999년 1학기부터 창업에 관한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2년제 대학 이하에서는 창업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2년제 대학 졸업생도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함에도 한국 대학 창업 교육에서 이들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5 이론적 배경과 본 연구의 목적

창업을 하려면 먼저 창업정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창업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맹목적인 창업의지만 갖고 창업을 한다면 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창업 교육이 없이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의지가 발생될 수 없고 그릇된 의식과 의지로 인하여 창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달리 창업 교육 역사가 매우 짧은 한국에서 IMF를 당하여 정부는 물론 사회에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어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IMF 전보다 제고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들에 대한 창업 교육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여 대학의 장기적 창업 교육계획 수립의 방향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창업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고 이들 연구는 대부분 창업 교육의 필요성(박춘엽, 1993), 교과 내용 및 전공과정 개발(조병주, 1996), 창업 교육 실태(1998, 한정화, 이명자), 교수방법 및 교육방향(조병주, 1998)등에 관한 것이다. 창업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방향 등을 제대로 개발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식을 분석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정화, 이명자(1998)는 창업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프

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연구(1998)에서 창업 교육효과를 간단히 다루었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한 빈도분석만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더 필요하다. 4년제 대학생들 뿐 만 아니라 2년제 대학생들도 창업 교육의 중요한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한국의 대학생들(2년제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 의식과 교육효과를 심층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

이에 4년제 대학생들 뿐 만 아니라 창업 교육을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2년제 대학의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를 분석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창업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들과 2년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관심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창업 경여 과목을 수강한 4년제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4년제 대학생들, 창업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2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에 대한 효과도 비교 분석한다. 이와 아울러 창업 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창업의 의지와 관심도 같이 분석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창업 교육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여 한국 창업 교육의 기초가 되고자 함이다.

Ⅲ. 연구조사 방법

3.1 개요.

본 연구는 1998년도 2학기 경기대학교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과 경영'을 수강한 학생들과 같은 대학의 미수강생집단, 2년제대학(오산대학)의 미수강생집단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단 미수강생 집단의 하나인 오산대학은 창업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만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창업의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이유는 2년제 대학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년제 대학생들 또는 졸업생들도 창업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1998학년도 2학기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과 경영'을 수강한 경기대학교 수강생(209명)과 경기대학교 창업과 경영 미수강생(85명), 2년제 대학 미수강생(78명)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의지와 관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2 교육 내용

경기대학교에서 1998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창업 경영의 교육 내용은 Jeffrey. A. Timmons의 New Venture Creation(1994년판, Irwin McGraw-Hill)이란 교과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담당교수(필자)가 우리말로 편집 요약하여 학생들에게 print out하여 교수 하였으며 학기말에 지원자에 한해 창업 계획을 발표하게 하였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1세기의 환경변화
2. 경영의 기본개념
3. 창업의 의의 및 개념
4. 창업가 및 창업 정신
5. 창업 아이디어 창출
6. 창업 기회 분석 및 포착
7. 팀창업
8. 가족 창업
9. 창업 자원 계획
10.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계획서 작성
11. 창업 계획 발표

3.3 표본 집단

4년제 대학인 경기대학교 학생들 집단중 수강자 집단은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수강자 집단은 거의 모두 경영학부 3학년생들이다. 2년제 대학(오산대학)의 학생들은 사무 자동화 학과 학생들이 주 구성원이며 이 학생들은 컴퓨터 시스템 사용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웹디자인등은 4년제 대학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어 벤처창업에 대한 기술적 자질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3.4 교육효과 분석을 위한 통제 집단

교육 효과 분석을 위한 실험 집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대학교 1998년도 2학기 창업과 경영 수강자이다. 통제 집단은 1998학년도 2학기에 창업과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경영학과 3학년 학생들과 오산대

학 사무자동학과 학생들이다. 실험집단의 전공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집단 전공별 수강생수

전 공	수 강 생 수
경 영 계 열	48
공 학 계 열	59
인 문 사 회 계 열	32
예 체 능 등 기 타	70
계	209

3.5 설문지 배부

설문지 내용은 같다. 배부는 모든 표본 집단에게 1998년 2학기 종강시(1999년 12월초)에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수업시간 중에 배부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에 배부한 설문지를 전량회수 되었다. 배부는 경기대학교 창업과 경영 수강자 209명 미수강자 85명 오산대학 사무자동학과 학생들 78명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대학교 학생들중 수강생의 전공은 다양하고 미수강자 집단은 주로 경영학과 3학년들이며 오산대학 학생들 전공은 사무자동학이다.

3.6 사용된 변수의 측정

선행 연구에 의하면 창업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고 창업에 관한 개념과 지식이 올바르게 교육 되면 창업에 관한 인식이 바뀌면서 창업 정신이 고취되면서 창업의지와 욕구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 창업에 관한 지식을 더 습득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창업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학생들의 1. 졸업후 창업의욕 2.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3. 창업전공의욕 4. 창업에 대한 자신감 등을 변수로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3.6.1. 졸업후 창업의욕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일으키고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Clark et al., 1984 ; 조병주, 1998)은 창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욕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을 분석하기 위해 졸업후 취직대신 창업을 하겠는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점척도를 이

용하였다(1: 아니다, 2: 생각해 보겠다, 3: 그렇다).

3.6.2.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미국에서는 많은 경영대학원에서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또는 “벤처경영(ventur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호응도 높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많은 대학들에서 벤처 및 창업관련강의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창업에 대한 의욕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창업에 대한 의욕이 높은 학생들은 창업에 관련된 과목을 더 공부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의욕과 창업과 관련된 과목의 수강의욕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창업관련과목이 개설된다면 수강의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1: 수강하지 않겠다, 2: 생각해 보겠다, 3: 수강하겠다).

3.6.3. 창업전공의욕

창업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창업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에 대한 의욕이 아주 높은 학생들은 창업 경영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전공의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4점척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1: 아니다, 2: 생각해 보겠다, 3: 부전공으로 선택하겠다, 4: 그렇다).

3.6.4. 창업에 대한 자신감

한정화, 이명자(1998)연구에 의하면 간단한 빈도분석이지만 창업 교육후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증가가 주요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창업을 했을 경우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3점척도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1: 자신이 없다, 2: 보통이다, 3: 자신이 있다).

3.7 자료 분석 방법

회수한 설문지의 응답한 내용이 성실하여 모두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학생들로부터 회수한 설문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수강생집단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생집단, 그

리고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2년제 대학생집단들 간에 창업의지와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하였다. 졸업후 창업의욕,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창업전공의욕, 창업에 대한 자신감 변수들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한후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각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창업 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수강생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들 전공별로 창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어떻게 다른가도 분석을 실시해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WIN 7.0을 사용하였다.

IV. 자료 분석 결과

4.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졸업후 창업의지, 창업관련 과목 수강의향, 창업정신 의향, 창업에 대한 자신감 등 4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이 변수들은 모두 창업의지와 관련된 변수들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졸업후 창업의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과목을 재학시 공부하고 싶을 것이고 더 강력할 경우, “창업 경영”의 전공개설시 전공을 할 의욕도 있을 것이다.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약한 사람 사람은 창업에 대한 의지도 약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창업의욕	수강의욕	전공의욕	자신감
창업의욕		.150 **	.124 *	.142 **
수강의욕	.150 **		.366 **	.436 **
전공의욕	.124 *	.366 **		.205 *
자신감	.142 **	.436 **	.205 *	

** p≤0.01

* p≤0.05

위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대상의 네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네 변수를 모두 창업의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창업교육여부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

본 연구는 '창업과 경영'을 수강한 학생집단과 그렇지 않은 학생집단 사이에 졸업 후 창업의욕,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창업전공의욕,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창업에 대한 의지는 창업에 관한 관심과 의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창업에 관한 의욕과 자신감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1. 졸업후 창업의욕, 1.2.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1.3. 창업전공의욕 1.4.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창업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수강생집단(표에서 Group 1 이라한다)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생집단(표에서 Group 2 이라한다),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2년제 대학생집단(표에서 Group 3 이라한다)의 창업의지의 차이를 그것과 관련된 네 개의 변수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ANOVA를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졸업후 창업의욕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수강여부에 따른 졸업후 창업의욕의 차이

	Group1	Group2	Group3	F	Sig F
졸업후 창업의향	2.263	1.988	2.179	6.43	.002
Tukey HSD a.b	Group 1 > Group 2 = Group 3				

Group 1: 4년제 대학 수강생집단
 Group 2: 4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
 Group 3: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

<표 3>과 같이 졸업후 창업의욕의 경우 창업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수강생 집단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Tukey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미수강생집단과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4년제 수강생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후 창업의욕이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두집단 즉 4년제 대학생들이나 2년제 대학생들의 졸업후 창업에 대한 의욕이 같다는 것이다. 즉 창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4년제 대학생들도 2년제 대학생들과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같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창

업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집단이 주로 경영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2년제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수강을 한 4년제 대학생집단 보다도 경영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 창업에 대한 소양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년제 대학생들에게도 창업교육을 시행하면 그들은 4년제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병주(1998a)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창업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업실천단계로 나아가게 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lark et al., 1984).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연구결과와 같이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3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표 4. 수강여부에 따른 창업관련과목 수강의향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F	Sig F
창업관련 과목의 수강의향	2.684	2.388	2.000	39.062	.000
Tukey HSD a.b	Group1 > Group2 > Group3				

<표 4>는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에서도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분산분석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수강생집단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Tukey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 4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 그리고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이 각각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이 높게 나타나 '창업과 경영'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창업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미수강생집단인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의 경우 4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보다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이 낮게 나

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창업경영을 수강하지 않은 4년제 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경영학 전공의 3학년 학생들이므로 창업에 대한 의지와 의욕은 수강생집단보다 약해도 다른 전공과목들을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관한 과목들에 대한 수강의욕이 2년제 대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년제 대학의 경우 대부분 기술과 기능 위주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어 4년제 대학의 경영학 전공학생 집단보다 경영 및 창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끼므로 그에 대한 수강욕구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4.4 창업전공의욕

표 5. 수강여부에 따른 창업전공의욕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F	Sig F
창업전공의향	2.8852	2.3412	2.4872	5.321	.005
Tukey HSD a.b	Group1 > Group2 ≈ Group3				

〈표 5〉의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창업전공의욕의 차이에서도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Tukey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결과도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과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분산분석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전공의욕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4년제 대학생들이나 2년제 대학생들간에 전공의향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4년제 대학 미수강자 집단들이 경영학 전공 학생들이므로 그들의 전공이 사회적으로 인기있는 전공이고 창업경영도 경영의 한분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어도 전공에 대한 교과의욕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창업 경영 수강생집단은 경영학 전공계열이 아닌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미수강집단(경영학전공)보다 창업 전공의욕이 높게 나타난 것을 유추해보면 2년제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으면 창업경영을 전공으로 할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2년제 대학생들에게도 창업 교육

은 큰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들어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창업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정화·이명자, 1998). 또한 많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창업강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1999. 3. 2). 이러한 추세 속에서 실시한 창업교육이 학생들에게 창업전공에 대한 긍정적관심을 높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4.5 창업에 대한 자신감

표 6. 수강여부에 따른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Group 1	Group 2	Group 3	F	Sig F
창업에 대한 자신감	2.9087	2.8143	2.5385	23.171	.000
Tukey HSD a.b	Group1 ≈ Group2 > Group3				

〈표 6〉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ukey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과 4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이 2년제 대학 미수강생집단보다 높은 창업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생들에 있어서 수강자 집단과 미수강자 집단에서 창업의 자신감에서 차이는 없었다. 한정화, 이명자 연구(1998)에 의하면 창업 교육 효과로 자신감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연구는 교유생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빈도분석이다. 본 연구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비교분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연구결과는 신빙성이 없다.

본 연구 결과는 경영 계열 학생이 많이 포함된 집단에 대한 창업 교육후의 자신감은 경영 계열 집단의 미수강자 집단의 자신감과 비슷하나 2년제 대학의 미수강자 집단의 자신감보다는 높았다. 이는 창업경영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비 경영학 전공이 많고 미수강자 집단이 경영학 전공 3학년이므로 미수강자 집단이 창업 경영에 대한 소양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창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조병주, 1998) 창업의 정의와 창업 정신등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신문과 방송등에서 최근 창업 교육이 실업대책 일환으로 시행되어 창업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켜 도로행상, 포장마차등도 창업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어 창업 교육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창업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사회의 잘못된 창업관이 경영학 전공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앞의 창업관련과목 수강의향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2년제 대학의 경우 기술과 기능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경영 및 창업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할 수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중 많은 학생들이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고 실제 수능점수의 합격점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2년제 대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2년제 대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2년제 대학생집단이 4년제 대학생집단(미수강생 포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년제대학들이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벤처기업 창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나가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1999. 3. 2).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창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2년제 대학생들도 창업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창업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6 분석결과의 종합

위의 네 변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세 집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네 변수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 결과는 모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과 경영 수강자 집단에서 졸업 후 창업의지, 창업과 관련된 과목 수강 의욕, 창업 전공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수강자인 2년제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창업의지와 창업 전공의욕에서는 4년제 대학 미수강자 집단과 같이 나타났다. 단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서 4년제 대학 미수강자 집단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즉 2년제 대학생들도 4년제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창업의 욕망은 있으나 자신감에서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년제 대학생들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실패나 낮은 수능 점수로 인한 열등감과 그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이 원인일 수 있다.

창업의 성공 조건이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없다. Timmons(1994)에 의하면 창업정신과 의지가 있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창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창업자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창업 성공의 중요요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조병주, 1998).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년제 대학생들도 4년제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에서 창업의 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2년제 대학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창업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한다면 이들이 전공으로 교육받은 기술, 기능 등을 창업에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들 못지 않은 유능한 창업 역군으로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4.7 전공별 창업의지와 자신감의 차이

다음으로 창업교육을 받은 4년제 대학 수강생집단만을 대상으로 경영, 공학, 인문·사회계열간 전공별 창업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된 네 변수를 이용해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7. 전공별 창업의지와 자신감의 차이

	경영	공학계열	인문사회	F	Sig F
졸업후 창업의욕	2.2708	2.2203	2.2500	.139	.870
창업전공의욕	2.7917	2.8644	3.4375	1.237	.294
창업에 대한 자신감	2.9167	2.8644	2.8710	.296	.745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2.7917	2.5763	2.7500	2.439	.091
Tukey HSD a.b	경영 = 인문·사회 > 이공				

<표 7>의 분산분석결과는 전공별 창업 의욕과 자신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졸업후 창업의욕과 창업전공의욕,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경영, 공학, 인문·사회계열별로 10%의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 분석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경우 창업전공의욕의 평균값이 3.4375로 경영 및 공학계열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청의 '2월중 고용동향'에 의하면 2월 현재 실업자가 1백78만5천명이며, 실업률은 지난달 8.5%에서 0.2%로 상승한 8.7%로 지난 6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1999. 3. 20).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인식

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공학계통 학생들보다 더욱 심해 창업 경영의 전공에 대한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창업관련과목 수강의향의 경우 경영, 공학, 인문·사회 전공별로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ukey 방식에 의한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경영,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공학계열 학생들보다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부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공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순수인문 사회 계통의 전공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일보, 1999. 3. 17).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과 공학계열 학생들보다 인문사회 학생들이 창업에 관한 전공이 개설된다면 전공을 교체할 의향이 훨씬 더 높다. 이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에 상대적 어려움이 많은 경영 및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창업관련과목 수강의향이 공학 계열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우 경영분야에서의 창업관련강좌의 확대는 물론 공학 등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창업관련강좌가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조형래, 1998). 이러한 현상은 특화 및 전문화의 관점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에서도 경영계열은 물론 기타 전공분야에 창업관련강좌의 개설이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벤처기업 창업 붐에 따라 실무적 경험은 물론 창업에 관한 지식 및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의 실패확률이 높을 수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인 대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준비과정은 물론 창업후에도 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중앙일보, 1999. 3. 2).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식과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본 연구결과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미수강생집단보다 졸업후 창업의지,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창업전공의욕, 창업에 대한 자신감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2년제 대학생집단과 4년제 대학생집단에서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창업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같았다. 이는 2년제 대학생들이나 4년제 대학생들 모두 창업 교육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강생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전공별 창업의식의 차이에서는 졸업후 창업의향, 창업전공의향,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창업관련과목 수강의향의 경우 경영 및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공학계열 학생들보다 수강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 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를 촉진시키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분야는 물론 공학 등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창업관련강좌의 개설이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춘엽, "한국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실태연구 : 강좌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5권, 제2호, pp.79-114, 1993.
- [2] 박춘엽,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 벤치마킹식 접근", 중소기업연구, 제19권, 제1호, pp.251-277 1997.
- [3] 배종태,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2호, pp.156-180, 1998.
- [4] 조병주, "창업교육 :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27-47, 1998a.
- [5] 조병주, "창업기회 원천분석과 기회탐색의 전략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1호, pp. 245-266, 1998b.
- [6] 조형래, "새로운 창업교육의 방향",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1998b.

- [7] 조병주,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 전공 과목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pp. 159-171, 1996.
- [8] 지용희, "중소기업경영 교육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1권 제1호, pp.391-402, 1999.
- [9] 한정화·이명자, "한국의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5-26, 1998
- [10] Bolinger, L., K. Hope and J. M. Utterbak(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 pp.1-14
- [11] Carnier, C. "Intrapreneurship in Small Business: An Exploratory Stud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pp.5-20, Fall, 1996.
- [12] Clark, B. W. et al.,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p.26-31, April, 1984.
- [13] Cooper, A. C.(1991), "Spin off and Technical Entrepreneurship," IEEE Transaction Engineering Management, EM-18, pp.2-6
- [14] Gartner, W. B.,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 12, No.4, pp.11-22, 1989.
- [15] Moon, H. C., and Peery, Jr. N. "Entrepreneurship in International Business: Concept, Strategy and Implementation", Entrepreneurship,
- [16]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Cambridge, MA
- [17] Solomon, G. T., L. W. Fernald Jr. and L. M. Weaver, "Trends in Small Business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 : An Update,"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Proceedings, 38th World Conference, Las Vegas, Nevada, U. S. A., pp.230-242, 1993.
- [18] Timmons, J. A.,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1994.
- [19] Innovation and Change, Vol.6, No.1, pp5-20, 1997.
- [20] Wortman, M. S. "Entrepreneurship: An Integrating Typology and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2, pp.259-270.

저자 소개



장대성
 197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78-1980: 증권예탁원
 1980-1983: 극동건설(주)
 1983-1985: 남오레곤 주립대
 경영학학사
 1986-1987: 네브라스카대
 경영학석사
 1987-1992: 네브라스카대
 경영학박사
 1993-현재: 경기대 경영학교수